

사회

■ 불황 속 방학... 대학생들이 사는 법

취업 준비 도서관 생활 밥은 구내식당서 해결

인터넷 강의 함께 듣고 방은 월세로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방학에 들어갔지만 경기불황에 취업난까지 겹친 캠퍼스에서는 여유로움을 찾기 힘들다. '먹고 대학생'이라는 우스갯소리는 옛말이 됐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빨리 취업 해야한다'는 생각이 대학생들의 생활상을 바꿔놓고 있다.

▲'초단기' 월세, 동영상 강의도 함께=생활비와 수업준비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초단기 월세가 등장하는 한편 값비싼 동영상 강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럿이 함께 수강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광주 C대학 장모(24)씨는 "두 달간의 방학중 취업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게 돼, 사용하던 방을 단기 월세로 내놔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릴 생각"이라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살지도 않는 집 월세까지 부모님 돈으로 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장씨는 이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내 방을 쓰든) 상관없다"며 "남녀 합쳐 5명 정도 연락이 왔는데,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좀더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公試族)'들이 늘면서 시험 준비를 위한 동영상 강의를 함께 수강하는 대학생들도 많다. 공무원 준비생 박모(29)씨는 "20만원이 넘는 돈을 혼자 내기보다는 학교 홈페이지나 도서관에 붙여진 쪽지를 통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등록한 뒤 시간대를 달리해 듣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 IP주정 등 업체의 감시가 강화돼 수강 장소가 동떨어진다면 적발될 수 있어, 되도록 학교 내에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이지만 비용을 줄이려면 달리 뽀족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농활' 즐기고, 도서관 물리고=취업난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는 풍조 등으로 인해 '농촌봉사활동(농활)'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25일부터 7박 8일간 구례군과 강진군, 나주시로 농활을 떠났다. 법과대학, 공과대학 등 4개 단과대학과

교내신문사, 동아리연합회, 풍물패 등으로 구성된 150여 명의 학생이 농활에 참여했다.

박희재 총학생회장은 "농활에 참여하는 단과대학은 물론 학생수도 점차 줄고 있다"며 "바늘구멍인 취업난 때문에 학생들이 맘편히 농활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농활에 참여하는 학생이 줄어든 반면 교내 식당과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몰리고 있다. 경찰공무원 준비하는 백모(27)씨는 "방학이지만 휴가 계획을 세우기보단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며 "식사도 값싸고 가까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조선평화고 서석용 식당 관계자는 "학기 중에는 하루평균 1천 명 분 식사를 준비했으나, 방학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전했다.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경기불황에 취업난까지 겹친 대학가의 방학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애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곡초 생태체험장

2일 광주시 광산구 동곡초등학교(교장 유상규)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체험장 개관식이 열렸다. '월빙형 전원학교'로 탈바꿈 중인 동곡초교에는 생태연못과 들꽃동산, 곤충체험관, 텃밭, 호박농쿨터널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조성돼 있다.

/위직람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30대 '원룸촌 발바리' 잡았다

서구 일대에서 여성 상대 10차례 강도·성폭행

광주지역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독신 여성만을 골라 10차례나 강도·강도 행각을 벌여온 이른바 '광주관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또 다른 연쇄 성폭행범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원룸 밀집지역에서 홀로 귀가 중인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 등을 일삼은 김모(32)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

일 새벽 5시에 광주시 서구 A원룸에 사는 K(여·23)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성범죄 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최초 범행장소인 A원룸에서 200m 반경 이내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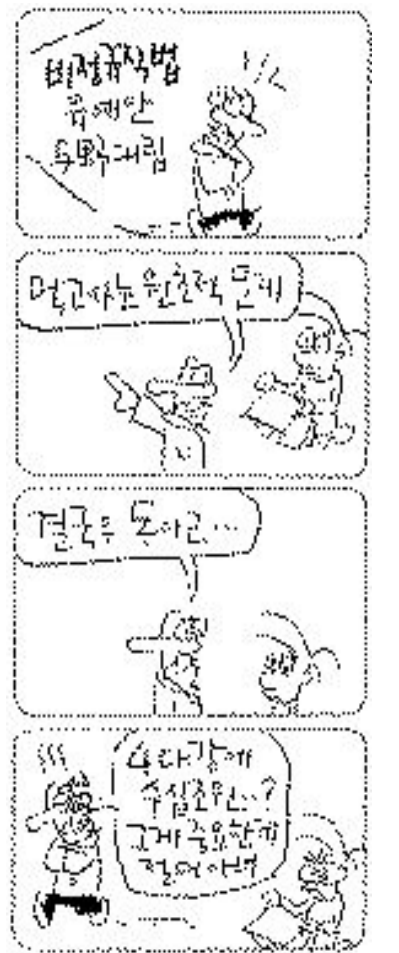
김씨는 특히 잠금장치가 풀린 창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수법을 써왔다. 김씨는 또 1년 전

까지 A원룸에서 100m 떨어진 모 원룸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피인도구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남성 36명의 정액과 타액 등에 대한 DNA 분석 결과 10건 모두 김씨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또 다른 성폭행범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은 16건으로 6건은 미해결 상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845) 김중두



"유치장에 넣어라" 전경 폭행

광주북부경찰은 2일 만취상태에서 "유치장에 넣어 달라"며 근무 중이던 전경을 폭행한 이모(48)씨를 공무원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북부경찰 소속 A(21)씨 등 전경 2명을 자신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액운 퇴치" 속여 금반지·팔찌 슬쩍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액운을 없애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 수백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서행.

○-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사는 김모(여·52)씨의 집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

○-이씨는 김씨에게 "집안에 액운이 있으니, 보관 중인 귀금속을 팔 그릇에 사들인 숨겨 놓아"고 속여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 경찰에서 "귀금속을 훔치지 않았다"며 범행을 강력 부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생 절반 1·2학년부턴 취업 준비

3,951명 설문조사

대학생 10명 중 5명은 1~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취업지원과가 최근 신입생 3천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준비 실태' 결과에 따르면 '1학년부턴 취업준비를 하겠다'는 학생이 25.8%, '2학년부턴 취업준비를 하겠다'는 학생이 26.3%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의사, 교사 등 전문직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및 국영업체가 25.6%

로 그 뒤를 이었다.

학과 선택 시기를 묻는 질문에 '원서접수기간에 학과를 선택했다'는 학생이 33.6%나 됐으며, '고3 원서접수 전'이라고 답한 이도 43.2%나 돼 대다수 학생들이 학과 선택을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춘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학생은 84.1%이며 생활비를 본인 부담하고 있는 학생은 11.9%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7.3%가 한 달 용돈으로 20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유사수신 227억 가로챈

40대 등 11명 구속·입건

광주동부경찰은 2일 수산물 가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업체 대표 오모(46)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6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07년 1월 초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딩에 회사를 차린 뒤 권모(86)씨 등 1천600여 명으로부터 227억여 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금은방 떼강도' 용의자 1명 검거

4명이 범행... 1명 국외로·2명은 국내 도피 중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금은방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금은방 강도 사건 용의자는 3명이 아닌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은 2일 금은방 강도 사건 용의자 4명 중 1명인 박모(58)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훔친 귀금속을 팔아 돈을 나온 뒤 해외 등으로 도피한 권모(5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 15일 밤 8시에 남구 구동 김모(48)씨 형제의 금은방에 침입,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시가 3억 원의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이들은 범행 3개월 전부터 광주에 내려와 네 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훔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범행 후 장물을 서울 모

금은방에 팔아 번 돈을 1천~1천500만 원씩 나눠 써 버렸다.

현재 주범 이씨는 국내에 도피 중이며, 또 다른 공범 권모(50)씨는 지난해 5월 초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공범 1명의 신원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절도 등 전과 22번인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드러나지 않은 공범의 존재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권씨를 붙잡기 위해 인더플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김형호기자 khh@

사교육비 부담을 위한 확실한 대책!!!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http://edu.ingang.go.kr

3만원의 행복

강남구립 우수한 교육인력들을 제법할 기회

연회비 3만원에 7,500강의 무료 수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 외국어고사
- 컴퓨터능력 (1회 검사 등) 우수 교사인 사관
- 학교내 컴퓨터, 멀티미디어, 인터넷 활용
- 수능, 내신, 모의고사, 1차, 2차 고사, 사관
-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제주

☎ 1577-9100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교육시설 최고의 합격비율

일반직 공무원 특채 (가능직→일반직)

'09년 10월 24일(토) 필기시험 대비 예정

주말 특별 단독반 7월4일(토) 개강

이론반 2개월(7/4~8/30) 진도 완벽 완성

사회(김영채 교수) 매주 토요일 13:00~21:00 (8시간, 8주)

행정(임혁 교수) 매주 일요일 10:00~18:00 (8시간, 8주)

합수 있다는 것! 공부습관(학문)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www.dongbu.ac.kr

1 동부고시학원

동부고시비전부 233-0509